3. 선교의 소명은 없지만, 동참할 용의는 있다
Not Called, But Willing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해외에 있는 외국인 기독교 학교 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느끼곤 해요"라고 메리가 말하자 "메리, 정말 놀랍네요!"라고 소리치면서 메리의 남편에게, "밥, 밥은 어때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밥이 "저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은 없지만, 메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따라갈 용의는 있어요"라고 답변했다.

오늘날에는 흔히 듣는 대화 내용이다. 그러나 윌리엄과 도로시 캐리가 선교사가 되었던 2백여 년 전에는 별 의미가 없었던 대화이다. 그 이유는 18세기말 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선교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졌고 사도들이 행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사도들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1780년대에 윌리엄 캐리와 영국 침례교인 몇 사람은 이 같은 성경구절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1792년 5월12일 라이체스터 헤럴드(Leicester Herald) 신문에는 윌리엄 캐리의 급진적인 책자였던 '이교도 개종 방법을 모색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가 소개되었다. 이 책에서 윌리엄 캐리는 '지상명령'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 여부를 물었고, 사도행전을 검토하고, 복음과 세계의 복음전파 상태에 대한 자세한 연구자료를 제시하고, 선교사역을 향한 반대들에 대해 반박했다.

이 책자와 더불어 윌리엄 캐리의 생애는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전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이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사 소명이 보편화된 것이다.

누가 선교사 소명을 받았는가?

지난 2세기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답이 제시되었다.

- **누구도 아니다**
  '지상 명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당시 그 곳에 있던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오직 그들에게만 적용된다.
- **모두 다 부름 받았다**
  '지상 명령'은 오늘날 각 개인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
-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문화권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 외의 사람들은 본국에서 후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왜 '선교사 소명'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는가?

만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부름을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그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이기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 중 하나는 자기 고국을 떠나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느끼고, 다른 배우자는 꼭 떠나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문제가 된다. 만약 그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게 되면, 소명 받은 배우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 좌절하게 된다. 반면에 그들이 떠날 경우, 소명을 받지 않은 배우자는 '휴가 상태'와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질적인 현지 생활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될지도 모른다.

성경은 '선교사 소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선교사 소명'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타문화권에서 섬겼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천사가 빌립에게 어떤 특정한 길로 가라고 말했다 (행8:26).
- 빌립이 길 가던 중에 그에게 마차로 나아가라고 명했다 (행8:29).
- 사울(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로 들어가라고 했다 (행9:3-6).
-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사울(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친히 택하셨음을 말씀하셨다 (행9:15).
-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는 중에 성령이 교회에게 이르시기를 주께서 특별히 불러 시키실 일을 위해 사울(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행13:2).
- 밤중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 서서 그에게 와서 도와 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다 (행16:9).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 다른 시기와 상황, 연관된 사람들과 영적 존재, 영감 등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느 한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신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가?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양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없다. 다음의 경우들은 소명 받은 자들을 묘사할 때 종종 표현되는 모습들이다.

- 어떤 이들은 인생의 고비를 경험한 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부르심을 마음에 느끼게 된다.
- 교회 지도자, 교사, 선교 지도자, 그 사람에 대해 잘 아는 동료들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열거된 자질들에 비추어 그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증한다.
- 소명받은 자들은 종종 특정 성경구절을 지목하여 자신들이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이런 특정 성구를 사용하여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고, 또한 부르신 후에도 그들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 소명 받은 자들은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 내에서 복음전도, 제자양육, 교육, 상담 등 사역을 맡아 지속적으로 감당한다.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이런 일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문화권에서도 이런 사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 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거울은 과거에 했던 행동이기에 그렇다.

-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교사는 가르치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이 선교사로서 대략 어떤 모양의 '선교사역'을 할지 알고 있다.
- 선교사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경험을 쌓는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3년간 아라비아로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사역을 준비하였다.
- 선교사 소명을 받은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선교의 본질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이다.
- 선교사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저 일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기 보다 특수 사역, 특정 그룹의 사람들, 특별한 장소 등을 위해 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물론 그 누구도 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 내용이 보여주듯이 명확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소명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가게 된 사람들보다 아마 더 오래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 소명도 있는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소명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런 오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다음에 열거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얻음**
  애정이 결핍된 사람일수록 선교사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는다고 믿는다.
- **속죄 행위**
  죄책감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이 어렵고 위험한 장소에서 하는 헌신을 통해 그 죄의 값을 탕감 받는다고 생각한다.
- **가족들의 압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선교사가 되기를 권장할 수도 있다.
- **여행**
  모험과 세상의 견문을 넓히기 원하는 사람들은 선교사역을 통해 이런 필요를 추구하려 할지도 모른다.
- **귀향**
  해외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선교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지 모른다.
- **할당량**
  일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다음 해에 파송할 선교사들의 숫자를 정하고,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선교사로 떠나게 될 수 있다.
- **필요를 충족시킴**
  어떤 이들은 해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로지 인도주의적인 동기만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한다.

이런 이유들의 목록은 끝도 없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로 선교를 떠난 이들은 선교지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대부분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몇 사람은 남게 되지만 '세심하고도 많은 관리가 필요한 사람(high maintenance)'이 되어 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

부부가 무엇을 해야 하나?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결혼생활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사역하는 선교사 공동체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한다.

소명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이의 소명이 잘못된 것일 수 있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는 소명에 대한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둘째는 자기가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참 소명을 받았을 수가 있고, 그가 효율적인 선교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이 두 가지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부부는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배우자의 '소명'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잘못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의로 선교단체에게 해를 입히려는 악한 사람들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실제로 진지한 마음으로 헌신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며,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 하고, 그들의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등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는 진정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된다. 그 때는 그들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소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들은 선교사들이 극적으로 소명을 받는 간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 바울이나 빌립이 소명을 받는 성경구절들을 읽었을 수도 있다. 비록 그들이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환상을 보지 못했고, 천사의 말도 듣지 못했고, 노상에서 강한 빛을 만나 장님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들 마음의 부담과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이들에 대한 긍휼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동기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잘 알려줄 수 있는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해심 많은 선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부부가 둘 다 선교사 소명의 확신이 있거나, 한 쪽 배우자가 사역에 대한 특정한 소명이 있고, 다른 한쪽은 부르심 받은 배우자를 섬기려는 소명이 뚜렷할 때까지 선교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